

커티스 M. 스카파로티 장군

사령관

유엔 사령부

한미 연합군 사령부

주한미군 사령부



커티스 M.스카파로티 장군은 오하이오주 로간 출신으로 1978년 美 육군사관학교에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.

스카파로티 장군은 보병 장교로서 현재 유엔사/연합사/주한미군 사령관이다. 그는 최근 美 합참 참모부장직을 수행하였다. 스카파로티 장군은 합참에서 근무하기 이전 아프가니스탄 주둔 국제치안유지군 사령관 및 주아프가니스탄 미군 부사령관직을 수행하였으며, 르위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1 군단장직을 수행하였고, 82 공정사단장직을 수행하였다.

추가로 스카파로티 장군은 美 중부사령부 작전참모, 美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등과 같은 미군의 전술적, 작전적 및 전략적 보직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. 스카파로티 장군은 또한 이라크 자유작전,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항구적 자유작전, 자이르/르완다에서의 SUPPORT HOPE 작전,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의 JOINT ENDEAVOR 작전, 리베리아에서의 ASSURED RESPONSE 작전에 참가하여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.

스카파로티 장군은 기초 및 고급 보병장교과정을 수료하는 등 여러 군사교육을 받았으며, 육군지휘참모대학과 육군대학을 졸업하였다. 그는 또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행정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.

스카파로티 장군은 방위우수공로훈장, 방위수훈훈장, 공로훈장, 동성훈장 및 육군
근무공로훈장을 수여받았다. 그는 또한 보병전투지휘장, 전문보병휘장, 월계낙하산휘장
및 레인저탭을 수여받았다.

스카파로티 장군은 오하이오주 로간 출신의 신디 베이트먼과 결혼하여 슬하 두명의
자녀와 두명의 손주를 두고 있다.